

## 간행사

이번 호는 금년 8월말로 정년퇴임을 맞이하신 최대권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호로 꾸몄습니다. 최 선생님께서는 지난 30여년간 주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하시면서 술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. 특히 우리 법사회학분야의 개척자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셨습니다. 최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연구테마를 잡아 참신한 시각에서 예리한 담론을 펼치셨습니다. 또한 낙후된 우리 법학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앞장서시곤 했습니다. 논제의 다양성의 면에서나 사고의 독창성의 면에서 최 선생님께서는 해석법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후배 교수들에게 늘 신선한 자극이 되곤 했습니다. 한 쪽에서는 관념적인 도그마틱이 엄연히 위세를 떨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시법학의 열풍이 몰아치는 우리 법학계에서 그토록 의연하게 학문적 소신을 일관하신 데 대해서는 새삼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최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건강도 청년 못지 않으시지만 지적 관심도 제자들을 무색하게 할만큼 왕성하십니다. 앞으로도 최 선생님께서 더욱 강녕하시고 현실과 이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저작으로 후학들을 계속 계도해주실 것을 동료교수들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.

2002. 9.

法學研究所長 金 建 植